

자원가격 및 해외자원개발 동향 및 전망

I. 자원가격 동향 및 전망	4
II. 해외자원개발 동향 및 전망	8
III. 결론 및 시사점	19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해청 (3779-6670)
hcllee@koreaexim.go.kr

< 요약 >

1. 자원가격 동향 및 2012년 전망

□ (동향) 2011년 유가는 상반기 MENA 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해 급등한 이후 선진국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락하여 10월 초 연중 최저치 기록, 최근 유럽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에 따라 100달러선(WTI유) 회복했다가 12월 중순 OPEC 증산, 석유수요 감소 우려로 94달러 수준까지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붐에 따른 공급과잉, 재고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 지속, 2011년 천연가스 평균가격은 mmBTU당 4달러 수준이 될 전망
- 유연탄 가격은 9월 초 이후 계절적 비수기 돌입으로 하락세, 우라늄 가격은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가격 약세 지속
- 비철금속 가격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 유럽 재정위기 우려 증대, 투기자금 이탈,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8월 급락하여 10~11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가격 약세 지속
- 철광석 가격은 3분기까지 중국 수요 견조 및 인도 수출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10월 이후 하락세

□ (전망) 2012년 국제유가는 석유수요 증가 둔화, 리비아 사태 해결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하락하여 배럴당 95달러(WTI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더욱 하락, 3.7달러가 될 전망
- 비철금속 및 철광석 등 광물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2012년에 상반기에는 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반등 및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전망

2. 해외자원개발 동향 및 전망

□ 세계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M&A 거래는 2008년 금융위기로 급감했으나 2010년 이후 빠르게 회복

- 유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거래비용 증가, 자원민족주의 심화, 자원확보 경쟁 격화 등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등 자원개발 투자비용 대폭 증가

- 2010년 M&A 거래 규모는 자산거래를 중심으로 급증하여 2,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치 기록
 - 2010년 아시아계 기업이 M&A 시장에서 급부상하여 전체 거래 중 약 20% 비중 차지
 - 자원종류별로는 비전통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에 대한 거래 비중이 지속 증가
 - 미국 셰일가스/셰일오일 및 캐나다 오일샌드는 지난 5년간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거래의 30~40% 차지
- 20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석유가스 부문의 M&A 거래는 지속 증가할 전망
- 해외 자원개발시장 환경이 자원 접근성 악화,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ExxonMobil을 비롯한 국제석유기업들 대부분 2011년 자산가치가 전년 대비 상승
 - 국제석유기업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네 가지 유형 즉 ①LNG, ②심해자원, ③비전통석유 및 ④비전통가스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
- 2011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는 연초 지식경제부 전망치 148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3.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메이저급에 견줄만한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을 육성할 필요
- 정책금융기관이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민간 거액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I. 자원가격 동향 및 전망

1. 자원가격 동향

- **(석유)** 2011년 상반기 MENA 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113.93달러, 4월 29일)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락하여 10월 초 연중 최저치(75.7달러, 10월 4일)기록, 최근 유럽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에 따라 100달러선 회복했으나 12월 중반 OPEC 증산 등으로 93달러로 하락
 - 2월 중순 이후 중동 소요사태가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로 확산되고, 4월 중순 이후 미국 달러화 약세와 함께 미 원유재고가 예상 외로 급감하여 WIT油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4월말 연중 최고치 기록
 - 8월 초 미 원유재고의 예상외 증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9월 중순 이후 유로존 우려 확산 등으로 하락하여 10월초 연중 최저치 기록
 - 11월 ECB(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움직임 등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감 상승, 원유재고 감소, 이란 등 중동 지정학적 우려 증폭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00달러 돌파, 7월 말 이후 최고치 기록(100.36달러, 11월 30일)
 - 12월 중순 OPEC 증산 합의, 미국 산업생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급락(93.87달러, 12월 15일)
- **(천연가스)** 1분기 온난한 날씨 및 재고 증가 전망으로 3월 초 mmBTU 당 3.8달러까지 하락, 6월 초까지 냉방용 수요 증가전망으로 상승(\$4.8/mmBTU, 6.8.)했으나 공급과잉, 재고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12월 중반 연중 최저치 기록(\$3.127/mmBTU, 12.15.)
- **(전력용 유연탄)** 1월 이후 수요 감소 전망으로 하락(\$113.65/톤, 2.10.), 2월 중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여름철 냉방용 수요 견조 등으로 톤당 120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 초 이후 계절적 비수기 돌입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여 연중 최저치 기록(\$101.65/톤, 11.25.)
- **(우라늄)** 원전수요 증가 전망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일본 원전 사태로 급락, 이후 가격 약세가 지속되며 8월 말 파운드당 50달러선 붕괴(\$49.2/lb, 8.31.) 이후 50달러선 회복

- **(비철금속)** 미국 신용등급 강등(8월 5일) 여파, 투기자금 이탈,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도 8월 이후 급락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약세 지속
- **(철광석)** 3/4분기까지 중국 수요 견조 및 인도 수출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가격 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10월 이후 하락세

< 주요 자원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10월	11월	12.15.	연중 최저	연중 최고
유가 (\$/배럴)	WTI	79.3	91.4	106.7	95.4	79.2	93.2	100.4	93.9	75.7 (10.4.)	112.8 (4.8.)
	Dubai	77.4	91.4	109.4	106.8	100.61	105.8	108.3	103.0	89.7 (1.5.)	118.3 (4.11.)
천연가스 (\$/백만BTU*)		5.6	4.4	4.4	4.4	3.7	3.9	3.6	3.1	3.1 (12.15.)	4.8 (6.8.)
유연탄(전력용) (\$/ton)		80.8	130.8	121.0	120.2	117.3	111.9	100.4	103.2	101.7 (11.25.)	131.4 (1.3.)
우라늄 (\$/lb)		44.5	62.5	62.5	52.2	52.2	52.0	51.8	52.8	49.2 (8.31.)	67.8 (3.18.)
철광석 (\$/ton)		111.5	176.0	180.5	175.5	178.5	131.5	147.0	146.0	131.5 (10.28.)	198.0 (2.25.)
전기동 (\$/ton)		7,346	9,740	9,400	9,301	7,132	7,901	7,430	7,290	6,812 (10.4.)	10,124 (2.14.)
니켈 (\$/ton)		18,480	24,960	26,080	23,125	18,305	19,225	16,935	17,850	16,935 (11.30.)	29,030 (2.21.)
아연 (\$/ton)		2,570	2,433	2,319	2,315	1,905	1,919	1,943	1,865	1,750 (10.20.)	2,546 (2.21.)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주) 유가는 2010년 1/4분기까지 현물가격, 4월 이후 WTI유 선물 1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 유연탄은 리차드베이산(ICE), 철광석은 중국수입가,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2. 자원가격 전망

- **(유가)** 2012년 유가는 배럴당 95달러 수준(WTI油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유가상승은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 지역 정정불안 증폭에 기인하고 있어 중동지역 리스크가 해소되면 상반기에는 배럴당 90달러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 위기 완화, 미국 경기회복과 경기부양책 효과,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EIA(미 에너지정보청)는 2011년 연평균 유가(WTI油)를 전월 전망치대비 상향조정하여 94.82달러로 예상, 2012년 유가는 전월 전망치대비 약 8% 상승한 98달러로 전망
- 2012년 원유생산량은 비OPEC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비전통석유(타이트 오일)가 비OPEC 생산증가를 주도할 전망으로, 미국 외 비OPEC 원유생산 증가는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비OPEC 원유생산량은 2011년과 2012년 각각전년대비 40만b/d, 12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생산량은 5,330만b/d로 전망
- OPEC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OPEC 잉여생산능력은 2010년 4분기 340만b/d에서 2011년 4분기 300만b/d로 하락했으나, 향후 리비아 생산 회복에 따라 2012년 1분기 410만b/d로 상승할 전망
- 한편 세계 석유수요는 2011년 8,813만b/d(전년대비 약 1.3% 증가), 2012년은 8,950만b/d(전년대비 약 1.5% 증가)가 될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구 분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0년 평 균	2011년		2012년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유 가	CERA (11.11.4.)	Dubai	78.1	104.7	105.7	103.2	104.1	103.6	105.4	104.0
		Brent	79.5	107.8	110.9	106.4	107.0	107.7	108.3	107.4
		WTI	79.4	83.2	92.3	88.4	97.0	97.7	99.0	95.5
	EIA (11.11.8.)	WTI	79.4	89.8	93.8	90.0	91.0	91.5	92.0	91.1
	PIRA (11.11.22.)	Brent	79.5	107.8	110.9	105.7	104.4	106.7	112.4	107.3
		WTI	79.4	91.7	94.5	96.7	100.2	103.0	107.4	101.8

주1)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2011년과 2012년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을 전월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하여 각각 mmBTU당 4.02달러와 3.70달러로 전망
 - 미국 천연가스 소비는 2011년은 67.2Bcf/d, 2012년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68.4Bcf/d로 전망
 - 2011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는 산업 및 발전부문 성장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2.3%, 2.2%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1년과 2012년 천연가스 생산은 육상 천연가스 생산 확대로 전년대비 각각 4.1Bcf/d(6.6%), 1.8Bcf/d(2.8%) 증가할 전망
 -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이 확대되어,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비철금속가격)** 2012년에도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비철금속 가격은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상반기에는 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달러도 기초적인 약세를 보여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
 - 구리는 상반기에 약보합세를 지속하나, 하반기에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빠르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 니켈 및 아연 가격은 제조업 수요 둔화로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다가 하반기 경기 반등 정도에 따라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
- **(철광석 가격)** 2012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가격 약세를 보이고,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광석 수요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이 세계 조강생산 증가를 견인할 전망

II. 해외자원개발 동향 및 전망 (석유·가스자원 중심)

1. 글로벌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투자규모

□ 세계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으나 2010년 이후 빠르게 회복

- 유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거래비용 증가, 자원민족주의 심화, 자원확보 경쟁 격화 등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등 자원개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
- 투자은행인 Barclays Capital은 2011년 E&P 투자액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5,30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2011년 6월)
 - 이는 400여개 석유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5%p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8년 사상 최대치인 5,000억 달러를 초과한 수준
- 석유산업 컨설팅회사인 IHS Herold도 2011년 E&P 투자 전망에서 올해 E&P 투자액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4,0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2011년 6월)

< 세계 업스트림 부문 투자 추이(2009~2011) >

Peer Group Universe	2009	2010	2011E	'10 vs. '09 % change	'11E vs. '10 % change
Global Integrated Oils	\$99,945	\$110,941	\$121,368	11%	9%
Outside North America Integrated Oils	\$103,497	\$117,282	\$132,857	13%	13%
U.S. Integrated Oils	\$8,318	\$9,848	\$11,200	18%	14%
Canadian Integrated Oils	\$7,916	\$12,261	\$13,882	55%	13%
Largest North American E&Ps	\$40,729	\$56,897	\$58,740	40%	3%
Large U.S. E&Ps	\$10,818	\$12,827	\$11,995	19%	-6%
Mid-Sized U.S. E&Ps	\$4,312	\$8,080	\$10,112	87%	25%
Small-Sized U.S. E&Ps	\$4,827	\$7,527	\$8,559	56%	14%
U.S. E&P MLPs	\$309	\$564	\$805	83%	43%
Canadian E&Ps & Trusts	\$3,491	\$4,837	\$5,387	39%	11%
Outside North America E&Ps	\$19,582	\$19,682	\$26,454	1%	34%
U.S. Pipelines, Power & Diversified	\$2,638	\$3,233	\$4,811	23%	49%
Total Peer Group Universe	\$306,381	\$363,981	\$406,169	19%	12%
Total Integrateds	\$219,676	\$250,332	\$279,307	14%	12%
Total E&Ps	\$86,705	\$113,648	\$126,862	3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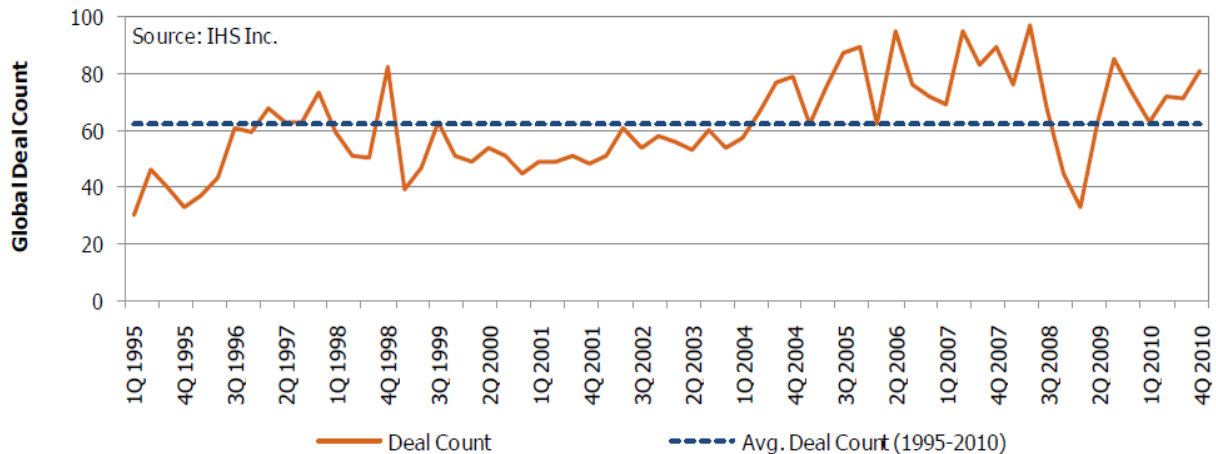
자료: IHS Herolds

나. 세계 M&A 거래

□ 세계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 역시 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된 이후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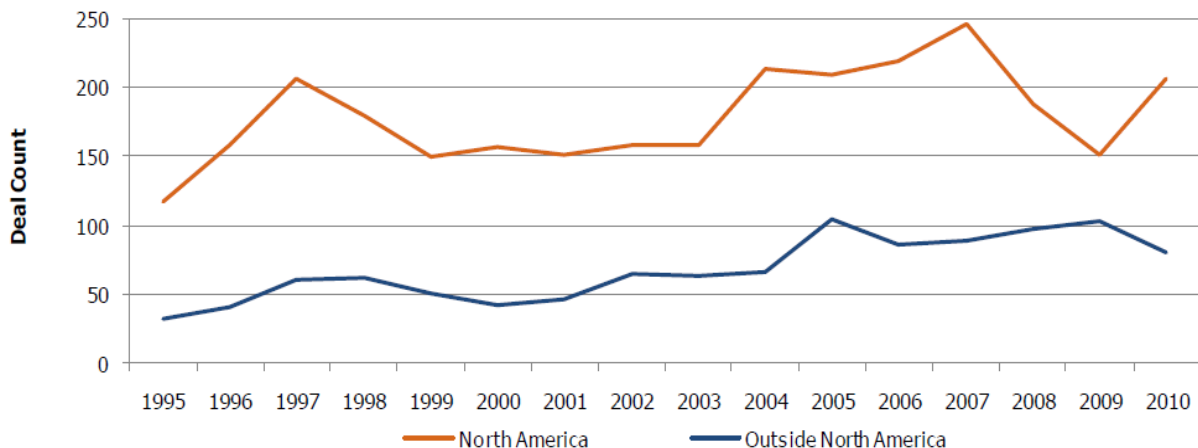
- 2009년 하반기 이후 M&A 거래건수가 증가,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세계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건수 추이 〉



- 지역별로는 2010년 북미지역 M&A 거래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북미외 지역 M&A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
- 북미지역 거래 증가는 ■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자원 관련 자산 거래 증가, ■ 매력적인 투자조건(정치 안정성, 인프라 구축 등), ■ 현재 저평가된 WIT유와 미국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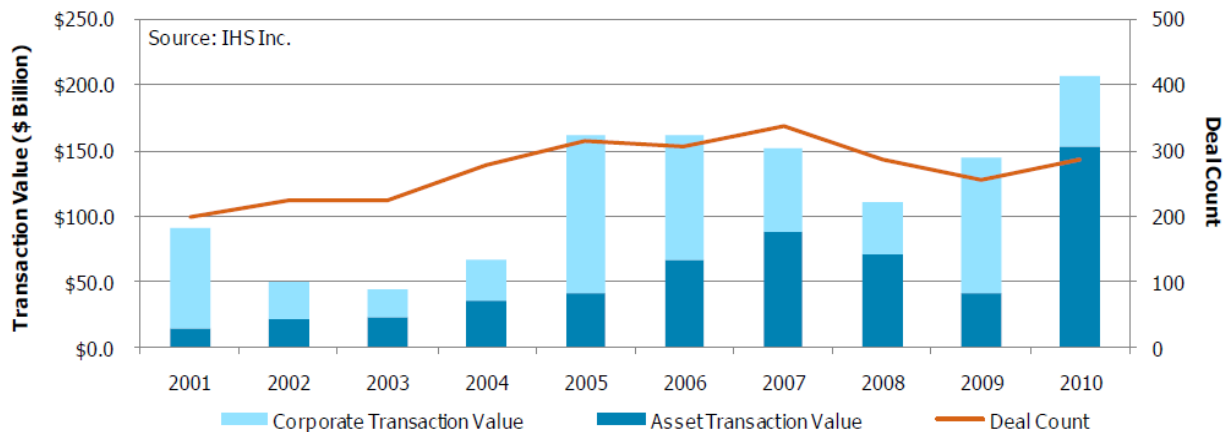
〈 북미 vs. 북미외 지역의 M&A 거래건수 추이 〉



자료: IHS Herolds

- 2010년 M&A 거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억 달러 상회하며 최고치 기록
- 이는 중국 등 아시아 국영석유기업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자산 취득 전략과 메이저기업 등 국제석유기업들의 자산매각(Asset Transaction) 전략이 맞물린 결과
- 2010년 기업거래(Corporate Transaction)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거래가 1건도 없는 등 전년대비 거래규모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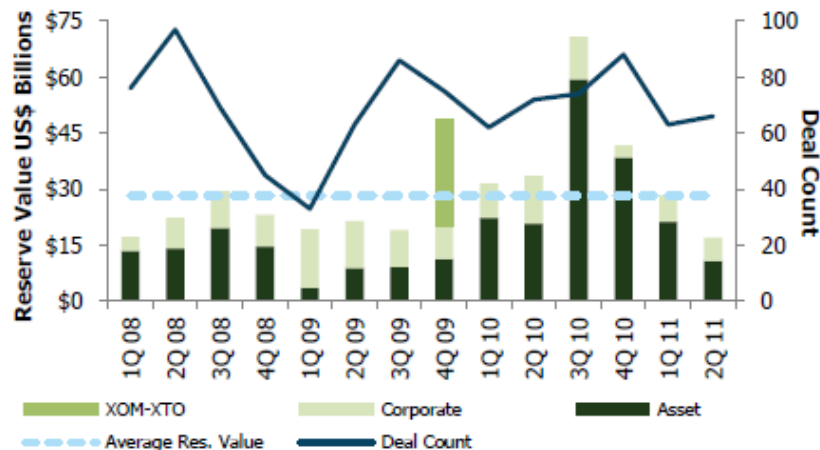
〈 세계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규모 추이(2001~2010) 〉



자료: IHS Herolds

- 그러나 2011년 상반기 들어 석유기업들이 2009년 이후 지속된 석유자산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미국,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의 영향 등으로 M&A 거래 위축
- 2011년 2분기 상류부문 자산거래 금액은 190억 달러로 1분기(327억 달러) 및 2010년 4분기(488억 달러)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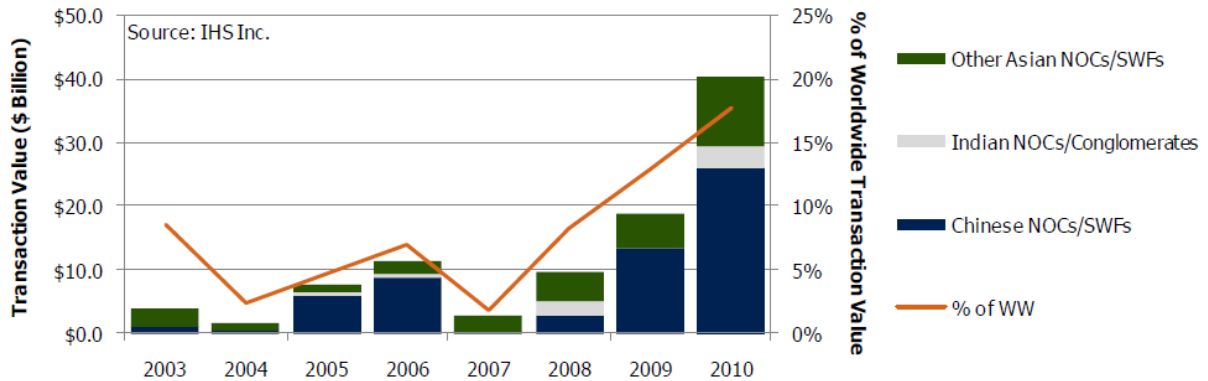
〈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규모 최근 추이(2008 1Q~2011 2Q) 〉



자료: IHS Herolds

- 2010년 아시아계 기업이 M&A 시장에서 급부상하여 전체 거래 중 약 20% 비중 차지
-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영석유기업, 인도 Reliance 등이 M&A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 특히 미주 지역으로의 신규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 확대가 두드러짐

〈 아시아계 기업의 해외 M&A 거래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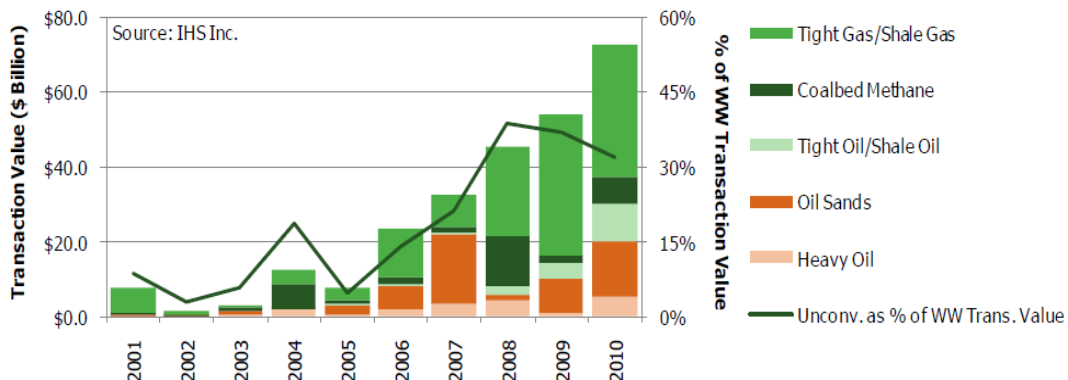


Note: Excludes transactions between NOC parent and subsidiaries, and excludes transactions within home country

자료: IHS Herolds

- 자원종류별로는 비전통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에 대한 거래 비중이 지속 증가
- 미국 셰일가스/셰일오일 및 캐나다 오일샌드는 지난 5년간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거래의 30~40% 차지
- 광대한 비전통 자원 사업개발을 위하여 자금여력이 있는 국제적인 투자자들과 기술적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E&P 기업과의 제휴기회 모색

〈 비전통자원의 M&A 거래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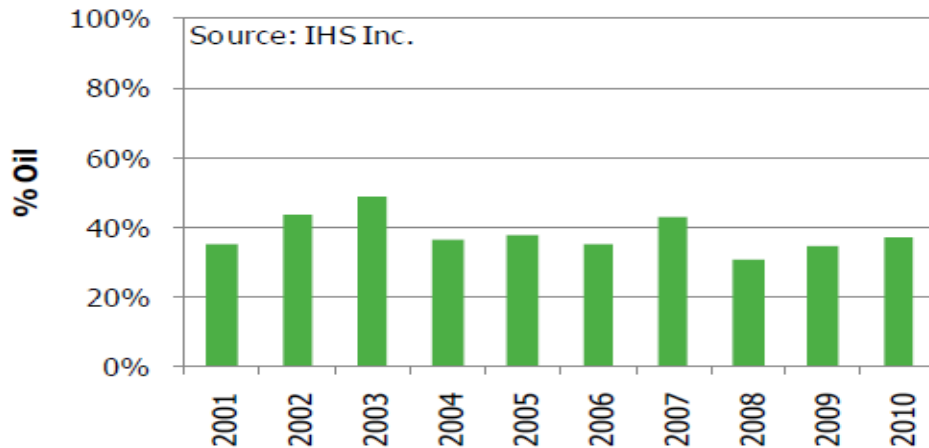


Note: Suncor (SU)/Petro-Canada (PCA) deal allocated 35% to oil sands; ExxonMobil (XOM)/XTO Energy (XTO) allocated 75% to tight gas

자료: IHS Herolds

- 북미 외 지역의 경우 석유와 가스가 거의 50:50의 동일한 비율을 차지함에 반해 북미지역은 가스자원 중심으로 거래되는 경향
- 다만 최근 석유와 가스 가격 격차가 확대¹⁾됨에 따라 북미지역에서도 석유자원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북미 지역의 석유·가스전(1P2) 거래 중 유전 비중 >



자료: IHS Herolds

□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석유가스 부문의 M&A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인 유가 강세 전망, 유기적 성장의 한계 등은 M&A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미국, 유로존 재정위기 등 또 한 차례의 신용위기로 인해 M&A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
- 북미 비전통 자원(셰일오일, 오일샌드 등)은 계속하여 기업들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임
- 독립적인 E&P 기업들은 북미 비전통 자원개발에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NOC, 메이저 등과의 제휴 및 인수합병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1) 과거 10개년간 통상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가격의 60% 정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9년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한 이래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가격의 25~30% 수준에 불과

2) 1P : Proved Reserve(확인매장량),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할 것이 확실시되는 매장량(확률 9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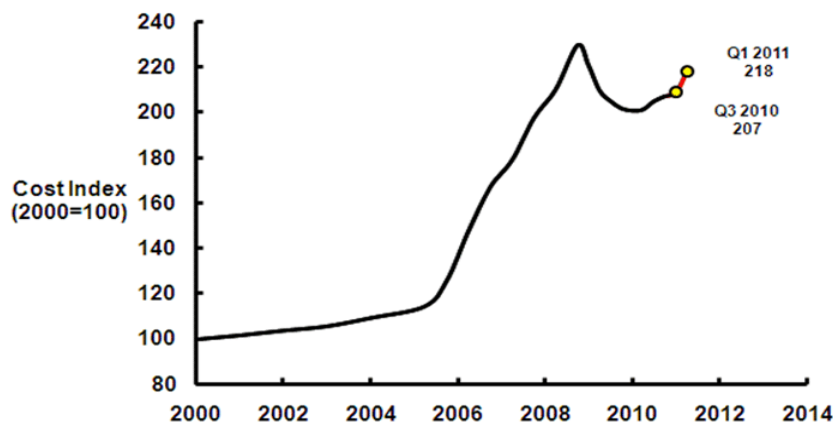
- 북미 외 지역 중에서는 아프리카, 남미가 정부의 자원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자산 및 신규유전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MENA 지역의 정치불안 등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동지역으로 투자자본 이동
- Sinopec, CNOOC 등 중국 NOC는 2010년 자산 인수를 통해 브라질 해상개발 및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에 최초 진출
- 아시아 국영석유기업들은 미주 지역을 포함하여 글로벌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자산취득을 가속화할 전망

2. 국제석유기업 동향

□ 해외 자원개발시장 환경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 악화,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

- 자원에 대한 접근성 악화
 -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재부상한 자원민족주의가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는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통제가 강화되는 추세
 - 최근에는 캐나다, 호주, 중국 등도 로열티 또는 자원세를 인상하는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통제 및 이익극대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
- 자원확보 경쟁 격화
 - 신흥 석유소비국(중국, 인도)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국영석유기업 중심으로 세계 석유개발 및 자산매입에 공격적
- 자원개발비용 상승
 - 자원개발비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폭락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에 그쳤으며 이후 유가상승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
 - CERA의 상류부문 투자비용지수(UCCI)는 2011년 1분기 218로, 6개월 전 대비 5.3%, 전년 대비 8.5% 상승
 - 이는 철강(6개월 전 대비 13%) 및 장비비용(3%), 인건비(9%) 상승에 따른 것임

〈 CERA의 상류부문 투자비용지수(UCC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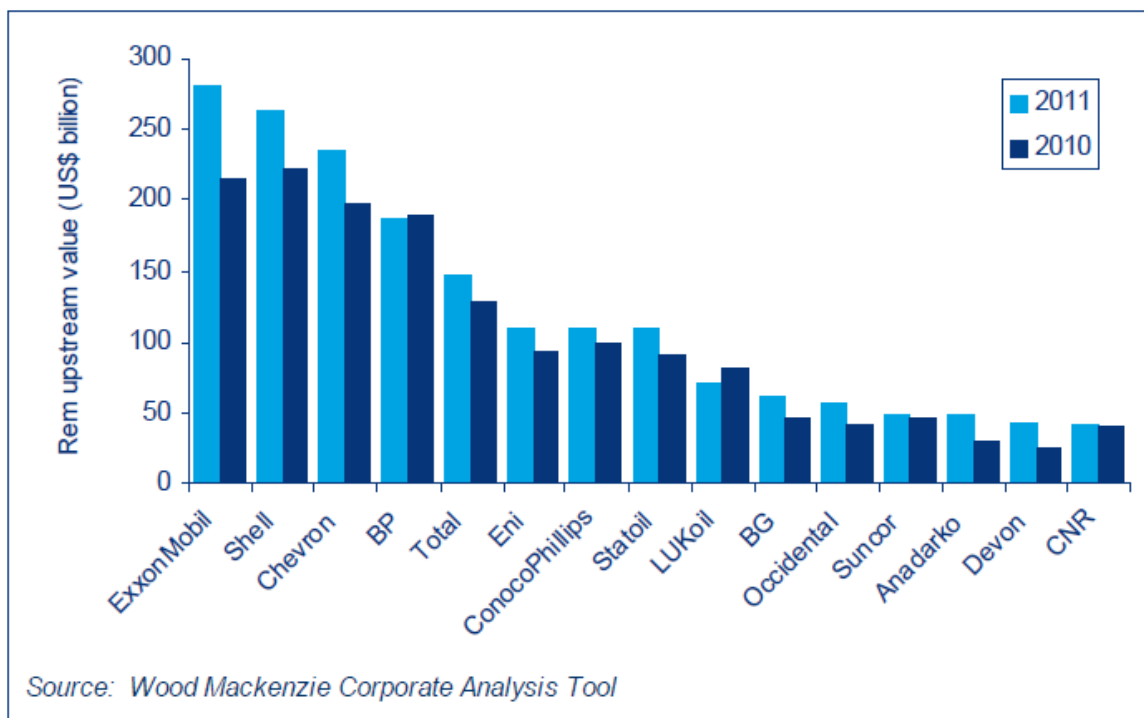


자료: CERA

□ ExxonMobil을 비롯한 국제석유기업들 대부분 2011년 자산가치가 전년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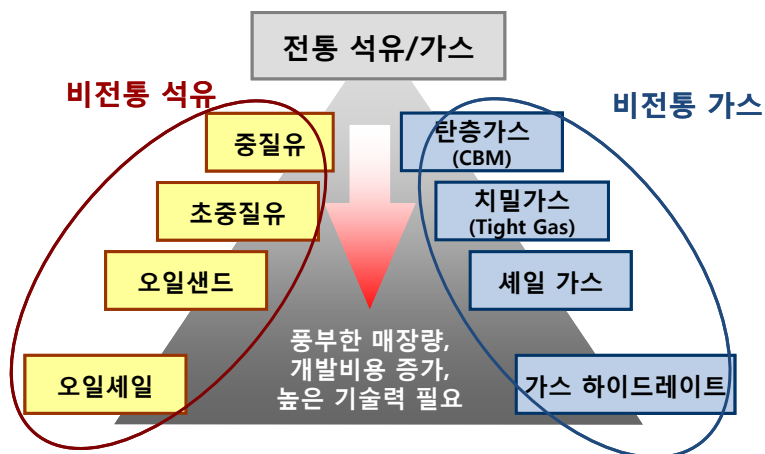
- 엑손모빌은 XTO Energy 인수를 통해 Shell을 추월하여 업스트림 자산가치, 2천8백억 달러로 메이저 중 1위로 부상
- 그 외 BP, ConocoPhillips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도 인수 전략을 통해 자산가치가 평균 19% 증가할 전망
- BP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 증가 정체
- ConocoPhillips는 신성장전략(Shrink-to-grow) 하에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준비를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함

< 15대 국제석유기업의 2010~2011년 업스트림 자산 가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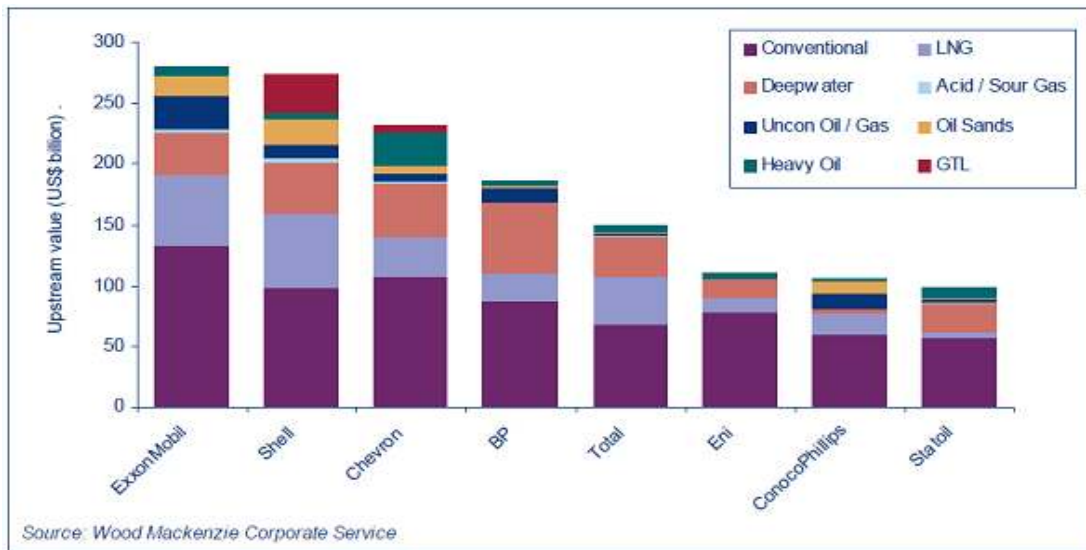
- 최근 자원개발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석유기업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네 가지 유형 즉 ①LNG, ②심해자원, ③ 비전통석유 및 ④비전통가스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
 - LNG 사업은 향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및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원거리에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선호되고 있음
 - 심해자원은 최근 신규발견 매장량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비전통자원은 과거에는 자원으로서 의미가 없었으나 최근 고유가, 기술발전에 따라 채산성이 증가하면서 신자원으로서 부각
 - 전통자원이 집중된 형태로 매장되어 있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개발비용이 낮은 것과 달리 비전통자원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유동성이 떨어져 채굴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개발비용이 높은 특성
 - 비전통석유 총매장량은 전통석유 총매장량의 약 4.8배에 이르나, 전통석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유가 수준에 따라 매장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비전통자원의 분류 >



- 근해, 육상에 위치한 대규모 전통 자원이 주로 자원민족주의가 심한 OPEC, 러시아 등에 집중되어 전통자원에 대한 국제석유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들의 심해 및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지속 증가할 전망

〈 메이저 기업의 업스트림 자산 포트폴리오(2011년) 〉



-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그간 위축되었던 신규탐사개발을 만회하기 위해 탐사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
 - 2010년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의 영향 등으로 심해지역의 신규탐사 위축
 - 또한 기업들이 탐사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신규탐사보다는 기존 유전의 생산량 증진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2011년 메이저 기업들은 다시 신규탐사 투자금액 확대
 - Total은 CAPEX \$200억 투자(전년 대비 11% 증액), 80%는 E&P 분야 투자
 - Chevron은 2011년 상류부문에 \$226억 투자 계획(전년 대비 20% 증액)
 - Shell은 2011-2014년 연간 \$250-\$270억 자본투자 목표 확정
 - ConocoPhillips는 2011년 CAPEX(\$135억) 중 약 \$122억을 E&P분야에 투자(2010년 \$85억 투자)

3.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최근 크게 증가

- 2010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91억 달러로 2006년 22억 달러 대비 4배 이상 증가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추이 >

(백만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투 자 액	2,180	2,904	5,808	6,213	9,094
석유·가스	1,993	2,231	3,930	5,187	6,454
광물자원	187	673	1,878	1,026	2,640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 2011년 해외자원개발투자규모는 연초 지식경제부 전망치 148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3분기까지 자원부문(광업) 해투 통계액³⁾은 53억 달러로, 연초 예상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공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민간기업의 사업진출단계가 탐사 단계에서 개발생산단계로 진전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자금 수요 급증

3) 수는 해투 통계는 지경부 발표 해외자원개발총투자액과 집계기준상 차이로 연평균 20% 정도 적은 수준

III.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도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메이저급에 견줄만한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
 - 정부의 공기업 대형화 육성정책에 힘입어 석유공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기업 대비 생산규모, 기술력, 사업추진 경험 측면에서 여전히 열세에 있음
 - 국내 민간기업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리스크가 높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민간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
- 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자금조달 여부가 자원개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비와 리스크가 높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상업금융의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음
 - 정책금융기관이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민간 거액자금 유입 촉진 도모